

[러시아 · 유라시아 비즈니스 정보]

새로운 체제 하에서 개혁이 진행되는 우즈베키스탄

우즈베키스탄이 바뀌고 있다. 미루지요에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 체제 하에 급속도로 개혁이 진행되고 있다. 개혁은 사회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특히 외환 규제 완화에 의한 비즈니스 환경 변화에 큰 진전이 엿보인다.

개혁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

전 카리모프 대통령의 사망 이후 샤프카토 미루지요에프 전 우즈베키스탄 총리가 2016년 12월 선거를 통해 대통령에 취임한 지 1년이 지났다. 이 짧은 기간에 새 대통령은 말 그대로 잇달아 새로운 정책을 내세워 왔다. ‘우즈베크의 페레스트로이카(쇄신)’으로 불리는 이 개혁은 국내에서 외교 및 경제의 다양한 부문에 이르고 있다.

국민의 평가도 최상이다. 우즈베키스탄 여론연구센터(이지티모이 피크르)가 2018년 1월에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93.7%의 응답자가 "새 대통령은 단기간에 높은 권위와 국민의 신뢰를 획득했다"라고 평가하는 등 높은 평가가 주를 이루고 있다. 중앙 집권적인 우즈베키스탄 여론 조사인 점을 제외하고 생각해도 국민의 대다수가 새 정부를 지지하고 있는 모습이 엿보인다.

국제금융기관도 우즈베키스탄 경제 분야의 개혁에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 대표단은 2017년 11월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이 추진하는 거시 경제의 안정과 투자 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보도 자료를 통해 발표하였다. 유럽부흥개발은행(EBRD)이 10년 만에 우즈베키스탄에서 활동을 재개한 것도 정부의 노력에 대한 증거라 할 수 있다.

비즈니스 환경 정상화 전진 중

미루지요에프식 개혁이 가장 눈에 띄는 형태로 구현된 것이 우즈베키스탄 통화 ‘숨’의 복수 환율 일원화 및 환전(외화 구입)의 자유화이다. 2017년 9월, 지금까지 1 달러 = 4,000 숨 전후였던 환율을 1 달러 = 8,000 숨까지 평가 절하했다. 환율 통일이 수입품을 중심으로 인플레이션과 외채 상환 부담 증가를 초래하는 것이 우려되었으나 이는 기우로 끝났다. 작년 11월의 휘발유 가격 인상, 12 월 법정 월 최저 임금의 인상으로 2017년의 인플레이션은 14.4%로 예년의 한 자리 수 인플레이션에 비하면 높았지만 비교적 안정된 추세를 보였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대외 채무도 2017년 말 22.2%로 카자흐스탄(110.1%), 키르기스스탄(73.1%) 등 주변국에 비해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미루지요에프 대통령은 경제 분야와 병행하여 사회 분야의 개혁도 추진해왔다. 우즈베키스탄은 12개 주와 자치 공화국 특별시(타슈켄트시) 등 총 14 개의 자치 단체가 있는데, 이 중 8 개 자치 단체장을 교체했다. 중앙·지방 간부의 대폭적인 인적 쇄신은 2018년 1월 이노야토프 국가 보안청 장관의 퇴임으로 완성되었다. 카리모프 전 대통령 시절부터 국정을 좌지우지해 왔다고 말하는 전 장관을 결국 물러나게 함으로써 명실상부하게 미루지요에프 대통령이 모든 권력을 장악했다고 평하는 목소리가 많다.

과거 소련의 공화국에서 중앙집권적 요소가 짙게 남아 있고 엄격한 외환 규제를 보였던 우즈베키스탄은 이제 새로운 체제 하에서 보통 국가로 변모하고 있는 것이 틀림없어 보인다. 2018년 2월 10일부터 한국을 포함한 7개국 국민에 대해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였고, 2,000달러 이하면 외화 신고도 불필요하게 되었다. 변화의 새바람이 불기 시작한 우즈베키스탄에 다양한 비즈니스 기회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가 모이고 있다.

자료정리: EMERiCs, 자료감수: 이평래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출처

일본무역진흥기구, 새로운 체제 하에서 개혁이 진행되는 우즈베키스탄, 2018.04.09

<https://www.jetro.go.jp/biz/areareports/2018/a813a0ace11f15fc.html>